

보문고 사태, 결국 학생들만 피해

내년 280명 정원에 지원자 20여명 그쳐 모집 중단
학교·교육청 싸움 속 자사고 포기...일반고로 전환

광주 보문고가 지난 23일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을 사실상 포기, 일반고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보문고의 자사고 포기는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고 극한 대립한 학교측과 광주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인 행태에서 비롯됐다. 해당 학교가 지난 8월 자사고 지정해제 파문으로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은 탓에 신입생 모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반(反) 자사고·특목고 정책도 작용했다.

보문고측은 24일 "지원 신입생이 20명선에 그쳐 모집을 중단했다.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학생 수업료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데 학생이 부족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문고의 신입생 모집 실패는 지난 8월 학교측과 시교육청이 교원특채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부터 예견됐다. 보문고는 지난 2010년 자사고 지정 당시 시교육청으로부터 과외교사 16명을 공립특채로 받아주고 기숙사 건립비용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학교측은 시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신입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전임 교육감의 약속을 번복한 대신, 공립교사 7명을 보문고에 2년간 파견했다. 그 배경에는 우수학생을 뽑아 가르치는 정부의 특목고 정책에 줄곧 반대해온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있다. 장 교육감은 취임초 대광여고의 외국어고 설립을 직권취소했고, 자사고·특목고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교사 채용 약속이행이 어렵게 되자

학교 측은 지난 8월 학부모의 반발에도 자사고 철회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조건부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양자간의 갈등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옮겼다. 그 여파는 신입생 모집에까지 미쳤다.

보문고는 일반고로 전환과 무관하게 현재 1·2학년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반납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지 불안해하고 있다. 보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교육청이 추천으로 배정하는 신입생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시교육청에 어떤 입장이든 밝히지 않는 상태"라며 "학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광주지역 자사고 3곳이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보문고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송덕고는 304명 모집에 343명, 송원고는 280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지난 23일 전격 중단한 광주 보문고등학교.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임용후보 논문표절 의혹 "이상없다"

전남대 총장 임용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본부 소회의실에서

총장 임용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 대해 논의하고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논문 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순위 후보 지방문교수의 논문은 인용표기가 부주의하게 누락된 점과 중복성 등은 인정되나 논문 발표 당시 통상적인 학계의 판단기준에 따른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순위 후보 윤택민 교수에 대해서는 "일부 논문의 이종재는 확실

하지만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임용후보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판정에 불복하면 오는 28일 오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내도록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겨울 춥고 눈 평평

오늘밤 광주·전남 눈

26일 밤부터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26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늦은 밤부터 27일 사이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빗방울과 눈발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광주·전남지역은 평년보다 추운 날이 많고 2월에는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3~5도) 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19~34mm)보다 많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형건물 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주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50만원, 지속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철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8분
해질 17시 22분

달돋이 15시 49분
달질 04시 57분

밤부터 찬바람 생생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

| | | |
|-----|--------|-------|
| 광주 | 흐리고가끔비 | 4/9°C |
| 목포 | 흐리고가끔비 | 5/8°C |
| 여수 | 흐리고가끔비 | 6/9°C |
| 나주 | 흐리고가끔비 | 4/9°C |
| 완도 | 흐리고가끔비 | 6/9°C |
| 구례 | 흐리고가끔비 | 4/9°C |
| 강진 | 흐리고가끔비 | 5/8°C |
| 해남 | 흐리고가끔비 | 5/9°C |
| 장흥 | 흐리고가끔비 | 5/9°C |
| 순천 | 흐리고가끔비 | 4/8°C |
| 영광 | 흐리고가끔비 | 3/8°C |
| 진도 | 흐리고가끔비 | 5/9°C |
| 전주 | 비또는눈 | 3/8°C |
| 군산 | 비또는눈 | 2/7°C |
| 남원 | 비또는눈 | 2/7°C |
| 옥산도 | 흐리고가끔비 | 7/9°C |

| 〈오전〉 바다 | 중랑 | 파고 | 감기지수 | 자외선지수 | 뇌졸중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1.5~2.5m | ☀ | ☀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5~3.0m | ☀ | ☀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0~2.0m | ☀ | ☀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5~2.5m | ☀ | ☀ | ☀ |

| 〈오후〉 바다 | 중랑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2.0~3.0m | 목포 00:18 | 05:40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2.0~4.0m | 13:01 | 18:16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5~2.5m | 여수 07:44 | 01:13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2.0~4.0m | 19:47 | 13:47 |

◇주간날씨

| 날짜 | 27(화) | 28(수) | 29(목) | 30(금) | 12/1(토) | 2(일)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1/8 | 1/11 | 2/9 | 0/8 | 0/9 | 1/9 |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휴무 참여율 51%

의사회, 정부 정책 반발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의료정책 아래에서는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수가 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51%가 토요일 휴무에 동의했다"며 "정부는 성분명 처방, 종액계약제, 포

괄수과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116개 시군구 의사회의 휴무예정 현황 보고에 따르면 총 1만4557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7357곳(51%)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토요일 휴무무렵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휴무무렵 참가율을 보고하지 않은 110개 시군구의 휴진율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전국 단위로 따지면 실제 의료기관 휴진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 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목포점 061) 262-9200 서울점 02) 765-9940

총장점 062) 227-9970 장흥점 080) 222-9975 순천점 061) 752-9940

JNJ TOUR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nt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오렌지호 장흥 ↔ 제주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항차 • 금토정흥/일성산출항 항차는 제외

선착순 3,00명 (사전예약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정남진투어 이용시 20% 할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항까지 버스 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 3일 투어 139,000